< 별 지 >

한국투자증권이 2014. 9. 26. 본회에 제출한『스탠바이 ELS』에 대한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부여 여부를 심의한 결과, 동 청구를 (인용)한다.

< 승 인 조 건 >

1. 배타적 사용권의 범위

○ 발행 후 일정기간 동안 고정 금리를 지급 받으며 기초자산 주가를 관측한 후, 기초자산의 움직임에 따라 최초기준가격이 결정되고, 조기상환 배리어도 추후에 결정되는 구조에 대한 사용권

2. 배타적 사용권 부여기간 : 3 개월

붙 임 : 1.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신청서
2. 신상품 설명서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신청서

신청회사명	**㈜한국투자증권**		**신청일자**	**2014.9.22**	
부서명	**DS부**	**창안자성명**	**투자금융본부 본부장 김 성 락**	**전화번호**	**3276-5564**
		e-mail	**IM1081@truefriend.com**	**팩스번호**	**3276-5849**
신청 상품	**스탠바이 ELS**				

[신상품의 주요 내용]

● 최초 투자 시점부터 일정기간(스탠바이기간 : 본 상품은 1개월)동안 기초자산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사전에 정해진 기초자산가격에 따라 상이한 자동조기상환형에 투자

▶ 발행 후 기초자산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일정기간(스탠바이 기간) 동안 연 2.5%의 고정금리 수익 지급. 연 2.5%는 시장금리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CD + α"의 수준으로 지급

▶ **스탠바이 기간 내 기초자산 가격이 모두 최초 기준가격대비 일정 수준 이하(기초자산 모두 동일 거래소 영업일 종가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2%)하락하는 경우**, 해당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Step-down 구조(90-90-90-85-85-85/K. I 60)에 투자

▶ **스탠바이 기간 내 기초자산 가격이 모두 최초 기준가격대비 일정 수준 이하(기초자산 모두 동일 거래소 영업일 종가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2%)하락하지 않은 경우,** 스탠바이 기간 종료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안정형 구조(85-85-85-85-85-85/K. I 60)에 투자

[배타적 사용권 인정 범위]

● 발행 후 일정기간 동안 고정 금리를 지급 받으며 기초자산 주가를 관측한 후, 기초자산의 움직임에 따라 최초기준가격이 결정되고, 조기상환 배리어도 추후에 결정되는 구조에 대한 사용권

[배타적 사용권 인정 근거]

● 기 발행된 ELS상품 구조를 모니터링 한 결과 당사의 스탠바이 ELS와 동일 구조 상품이 출시된 적 없음

● 발행 시점에 최초기준가격 및 조기상환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발행일 이후 기초자산 가격움직임에 따라 최초기준가격 및 조기상환 구조가 결정되는 구조는 현재까지 출시된 적이 없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 2-91조에 의거 금융투자회사의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부여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

2014년 9월 22일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유 상 호

신상품 설명서

1. 신상품 개발 개요

[신상품 개발 배경]

- ELS는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구간 내 있을 경우 정해진 수익률이 달성되는 상품으로 2014년 8월 한 달 간 6조 4,476억 원 발행. 발행 규모 상 역대 3번째 월 발행액 기록
- 지수의 상승은 과거에 투자한 ELS의 조기상환 가능성을 높여 재투자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최초기준가격 상승으로 인해 재투자를 망설이는 대기 자금도 증가시키는 경향 있음
- 한국투자증권은 주가 하락 시 ELS 투자를 하려고 대기하는 투자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ELS 발행 후 일정기간 동안 기초자산 가격 움직임을 지켜보다가 기초자산 가격 하락 시, 해당일의 주가로 Step down ELS 기준가격을 설정해주는 구조를 개발함

[신상품 내용(구조) 및 특징에 대한 상세 설명]

1. 주요 특징

- 상품 발행 후 스탠바이기간 동안 연 2.5% X (스탠바이 경과일수/365)의 수익을 지급 받음
- 스탠바이기간 동안 트리거 발생 시, 해당일의 종가를 최초기준가격으로 정하여 Step-down 구조로 조기상환 여부를 관찰하게 됨
- 스탠바이기간 동안 트리거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스탠바이 종료일의 종가를 최초기준가격으로 정하여 안정형(85 배리어) 구조로 조기상환 여부를 관찰하게 됨

2. 상품 조건 (원금비보장형)

기초 자산	KOSPI200 , HSCEI , EUROSTOXX50
만기/ 상환주기	3년 1개월 만기 / 7개월 이후 매 6개월 주기
상품구조	스탠바이 구조(1개월) + 자동조기상환 구조(3년/6개월 주기)

*** 스탠바이 구조 : 발행일(포함)이후 Calendar day기준 30일이 되는 날(스탠바이 종료일)까지 기초자산을 관측하여 스탠바이 수익률 지급**
*** 스탠바이 기준가격 : 모집 마감일의 각 기초자산 종가**

1. 트리거 : 세 기초자산 모두 동일 거래소 영업일 종가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2%이하 하락하는 경우
2. 스탠바이 수익률 : 연 2.50% X (스탠바이 경과일수/365)
- 스탠바이 경과일수
  A) 트리거 발생 시, 발행일(포함)부터 트리거 발생일(포함)까지의 달력일수
  B) 트리거 미 발생 시, 발행일(포함)부터 스탠바이 종료일(포함)까지의 달력일수

3. 스탠바이 수익률 지급일 : 트리거 발생일(불 포함) 또는 스탠바이 종료일(불 포함)이후 3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구조 :** 스탠바이 기간 내 트리거 발생 시 A)Step-down 구조, 트리거 미 발생 시 (B)안정형 구조적용

* 최초기준가격 결정일 - 트리거 발생 시 : 트리거 발생일 - 트리거 미 발생 시 : 스탠바이 종료일
A) 트리거 발생 시 Step-down 구조 - Step-down형(90-90-90-85-85-85/K.I 60) - 수익률 : 연 8.50% , 더미 : 25.50%(연 8.50%) **B) 트리거 미 발생 시 안정형 구조** - 안정형 (85-85-85-85-85-85/K. I60) - 수익률 : 연 6.50%, 더미 : 19.50%(연 6.50%)

상품 특징	**상품 발행 후 스탠바이기간 동안 고정 금리를 지급하며, 스탠바이 기간 내 세 기초자산 모두 동일 거래소 영업일 종가기준으로 스탠바이 기준가격의 2%이하 하락 시, 해당일 종가를 최초기준가격으로 하여 Step-down ELS A 구조)가 시작되며, 2% 이하 하락하지 않는다면 상환배리어를 낮춘 안정형(B 구조)로 전환하여 자동조기상환을 관찰하게 됨**

3. 수익 구조 상세

※ 트리거 : 스탠바이기간 동안 모든 기초자산이 동일거래소 영업일 종가기준으로 스탠바이 기준가격의 2%이하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A) 트리거 발생 시

1) 스탠바이 구조

구분	투자수익률
스탠바이 수익 (* 스탠바이경과일수는 발행일(포함)부터 트리거 발생일(포함)까지)	연 2.5% X (스탠바이경과일수/365)

2) 자동조기상환 구조

구분	내용	투자수익률
①자동조기상환 및 만기상환	각 자동조기(만기)상환 평가 일에 모든 기초자산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1차, 2차, 3차), 85%(4차, 5차, 만기)이상이라면 해당 투자수익 지급 후 상환	연 8.50% + 스탠바이추가수익률
②만기더미상환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동안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종가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더미 수익 지급 후 상환	25.50% + 스탠바이추가수익률
③만기손실상환	위 ①, ②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동안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종가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기준종목의 {(만기평가가격/기준가격) - 1} X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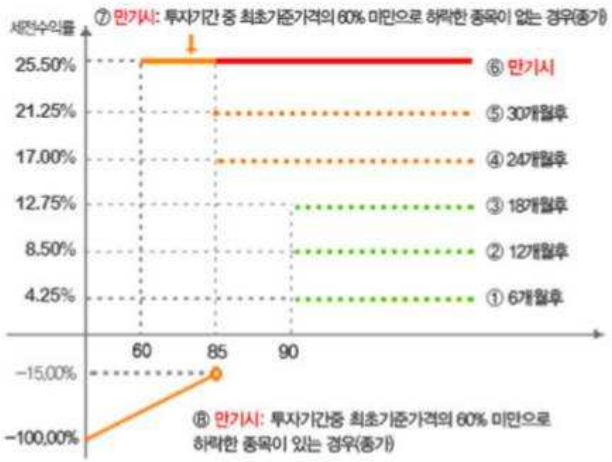
(*스탠바이 추가수익 : 연 8.50% X (최초기준가격 결정일(포함)이후 스탠바이 종료일(포함)/365), 기준종목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낮은 기초자산)

수익구조 (A) : 스탠바이 구조 + 자동조기상환 구조

1) 스탠바이 구조 : 스탠바이 수익률



2)자동조기상환 구조 : Step-down수익률 + *스탠바이 추가수익률



*스탠바이 추가수익률 : 연 8.50% X (스탠바이종료일(포함)-최초기준가격 결정일(불포함))/365 (단, 수익상환에 한함)

B) 트리거 미 발생 시

1) 스탠바이 구조

구분	투자수익률
스탠바이 수익 (* 스탠바이경과일수는 발행일(포함)부터 트리거 발생일(포함)까지)	연 2.5% X (스탠바이경과일수/365)

2) 자동조기상환 구조

구분	내용	투자수익률
①자동조기상환 및 만기상환	각 자동조기(만기)상환 평가 일에 모든 기초자산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5%이상이라면 해당 투자수익 지급 후 상환	연 6.50%
②만기더미상환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동안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종가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더미 수익 지급 후 상환	19.50%(연 6.50%)

③만기손실상환	위 ①, ②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동안 최초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종가기준으로 기준가격의 60% 미만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기준종목의 {(만기평가가격/기준가격) - 1} X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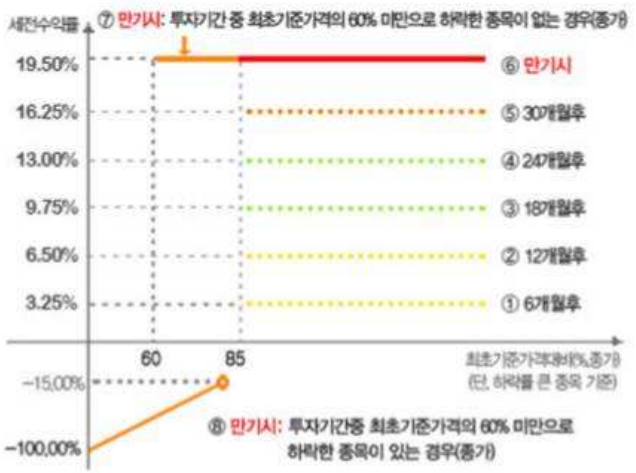
(* 기준종목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낮은 기초자산)

수익구조 (B) : 스탠바이 구조 + 자동조기상환 구조

1) 스탠바이 구조 : 스탠바이 수익률



2)안정형 구조 : Fixed-Barrier 수익률



[신상품 개발 기대효과]

1. 최초기준가격을 결정하기 전 스탠바이기간 내 "연 2.50%"의 수익 지급

- 스탠바이기간 동안 스탠바이 경과일수 만큼 "CD+ α"의 수익을 지급함으로써 최초기준가격이 결정되기 전까지의 관찰기간에도 수익이 누적됨
- 스탠바이기간 동안에 누적되는 수익률은 증권사 CMA 금리보다 높은 수준

[2014.7 기준 CMA 금리 비교]

구분	상품명	수익률
삼성	삼성 CMA+RP 형	2.20%
신한금융투자	신한 명품 CMA	2.20%
우리투자	Octo CMA-RP 형	2.15~2.20%
미래에셋	자산관리 CMA	2.15%
한국	아임유 CMA	2.15%
현대	현대 Able CMA	2.15%

(* 출처 : 각 사 홈페이지)

2. Step-down, 안정형(85 배리어) 구조와 비교 결과 안정성 향상

[2006.1.3~2011.7.29까지 매 거래소 영업 일에 Step-down구조, 안정형(85 배리어) 구조 및 스탠바이 ELS를 투자(총 1341개)한 경우를 가정하여 back testing 진행]

(*발행 이후 만기까지 관측 가능한 케이스로 기간 한정)

- **스탠바이 ELS는 Step-down 구조 대비 안정성이 높음**

  2006.1.3~2011.7.29까지 매 거래소 영업 일에 스탠바이 ELS 및 Step-down ELS를 투자(총 1341개)한 경우를 가정하여 상환이 달성된 상환평가 일을 관측한 결과, 스탠바이 ELS가 Step-down 대비 1차 상환확률은 4.48%p높고, 원금손실 확률도 낮음

[2006.1.3~2011.7.29 Back testing 결과 (상환 차수 및 해당 확률)]

구분	Step-down 90-90-85-85-80-80/K. I60	스탠바이 ELS	안정형 85-85-85-85-85-85/K. I60
1차 상환	881개 (65.69%)	941개 (70.17%)	988개 (73.67%)
2차 상환	62개	47개	53개
3차 상환	43개	24개	49개
4차 상환	48개	56개	31개
5차 상환	51개	48개	33개
만기 수익	17개	13개	17개
만기 손실	239개 (17.82%)	212개(15.81%)	170개 (12.67%)
Total	1341개 (100%)	1341개 (100%)	1341개 (100%)

(* 출처 : 한국투자증권 DS부)

3. 초기 진입시점 이후 기초자산가격이 하락할 경우, 최초기준가격이 낮게 설정이 되면서도 조기상환 수익률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초기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조기상환 가능성이 높아짐

- 트리거가 발생한다는 것은 모든 기초자산의 가격이 스탠바이 기준가격의 2%이하 하락한 상황이며, 이는 일반 ELS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초기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하락한 상황이어서 불리함. 스탠바이 ELS는 이런 경우에 최초기준가격을 낮추는 효과 발생
- 트리거 발생 시 스탠바이 ELS는 스탠바이 기준가격보다 적어도 2%이하 하락하여 더 낮은 가격으로 최초기준가격이 설정되면서도 일반 Step Down구조(여기서는 90-90-90-85-85-85 / K. I60)와 동일한 수익률(여기서는 연 8.50%)을 제시하므로, 조기상환 배리어를 낮추면서도 수익률은 동일한 상품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음
- 백테스팅 결과, 트리거 발생한 경우는 37.36%가 해당됨

[2006.1.3~2011.7.29 Back testing 결과 (트리거 발생횟수 및 확률)]

구분	개수	비율
스탠바이 기간 내 트리거 발생한 경우 (동일 거래소 영업일 종가기준으로 세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2% 이하 하락하는 경우)	501개	37.36%
스탠바이 기간 내 트리거 발생하지 않은 경우	840개	62.64%

(출처 : 한국투자증권 DS부)

4. 초기 진입시점 이후 기초자산 가격이 보함 내지는 상승할 경우, 최초기준가가 최초 진입 시점과 비슷하거나 높게 설정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조기상환확률을 높인 안정형(85 배리어)구조로 조기상환을 관찰하게 되어 수익상환 확률을 높임

2.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심의 항목별 인정 근거

[기존 국내외상품 또는 서비스와 비교할 때 독창성 정도]

1. 상품 발행 후 일정기간 동안 기초자산 가격의 움직임을 관측한 후 시장 상황에 따라 기준가 및 조기상환 배리어가 결정되는 독창적인 구조

- 기존에 발행되었던 상품들은 초기 투자 시점에 기준가가 결정이 되고, 수익 및 손실상환이 결정되는 구조임
- 스탠바이 ELS는 투자 초기에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최초기준가를 낮추어서 조기상환 확률을 높일 수 있음
- 스탠바이 ELS는 투자 초기에 기초자산 가격이 횡보, 내지는 상승하는 경우, 조기상환 배리어를 낮게 하여, 조기상환 확률을 높일 수 있음

2. 기준가를 결정하기 전까지 고정수익을 누적시켜주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기상환 배리어를 결정하기 위한 시장 관찰기간에도 수익이 발생함

- 스탠바이 ELS는 투자시점부터 트리거 발생일, 혹은 스탠바이 기간 종료일까지 고정금리(연 2.50%)로 수익이 누적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초자산의 추이를 관찰하는 동안에도 고정수익이 누적됨

[금융 거래에 있어서 고객의 편익 제고 정도]

1. 본 스탠바이 ELS의 출시로 투자 초기에 기초자산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 완화

- Step-down ELS는 최초기준가 대비 큰 폭의 하락이 없으면 약속된 수익 달성이 가능한 상품으로 낮은 기준가 발행은 수익 달성에 유리

- 본 스탠바이 ELS의 출시는 스탠바이 기간 동안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수준 하락 시, 최초 투자 시점보다 낮아진 최초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조기상환가격, 낙인 가격이 결정되며, 스탠바이 기간 동안 주가가 하락하지 않을 경우 안정형(85 배리어) 구조로 전환되므로 주가방향과 상관없이 안정성이 강화됨

2. 시중대기 자금 흡수로 인한 ELS 발행액 증가 효과 기대

- ELS는 투자시점의 주가가 중요한 만큼, 투자자는 투자 가능한 자금이 있어도 투자 시점을 정하기 전까지는 대기상태로 묶어두는 경우가 있음
- 스탠바이 ELS는 투자 이후 한 달간 고정수익을 누적해가면서 기초자산의 가격 추이를 관찰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다르게 최초기준가격 및 조기상환배리어를 결정하게 돼 투자 대기자금을 흡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상품 또는 서비스 개발에 투입된 인적 물적 자원 투입 정도]

1. 본 스탠바이 ELS의 경우 DS부 Sales 인력 외 자사 ELS R&D 전문 인력 60명과의 정기적 회의를 통해 제시되고 발전된 상품임
2. 주가 상승 시 CMA 계좌에서 대기, 주가 하락 시의 기준가로 ELS 상품 발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에서 insight 얻음
3. 당사 투자공학부의 ELS 트레이딩 팀과 Quant팀을 중심으로 해당 상품의 모델링 및 헤지 북 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DS부의 Sales 담당 인력의 투자자 니즈 파악과 기관 및 개인 투자자 수요 조사 등을 통해 본 상품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고객 니즈를 파악하였음